광주만의 특별함 담은 대표음식 7가지 선정

선정위원회, 공모전·페스티벌·시민 토론회 통해 확정
주먹밥·상추튀김·무등산 보리밥 등 미래전략 음식 육성

광주만의 특별함을 담은 대표음식이 탄생했다. 특히 이를 상품화하기 위한 조리법 개발을 통한 표준화 및 다양화도 추진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인13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광주대표음식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주대표음식으로 7개 음식을 최종 선정했다.

광주대표음식으로 선정된 7개 음식은 ▲광주 한정식 ▲광주 오리탕 ▲광주 주먹밥 ▲광주 상추튀김 ▲광주 육전 ▲무등산 보리밥 ▲광주 송정리 떡갈비 등이다.

이 가운데 광주 주먹밥은 '상징성'을, 광주 상추튀임인 '차별성'을, 무등산 보리밥은 '대중성' 을 대표하는 부문별 음식으로 선정해 미래 전략 음식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앞서 광주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광주 대표음식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광주음식 공모전, 스토리 공모전, 광주 대표음식 페스티벌 행사 및 100인의 시민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 의견을 반영한 대표음식 선정 작업을 추진해왔다.

광주음식 공모전과 스토리 공모전을 통해 추천된 음식은 광주 대표음식 선정위원회에서 광주 대표음식 후보 음식군으로 9개 음식을 선정하고 100인 토론회를 거쳐 3개(상징성, 차별성, 대중성) 부문의 음식을 최종 확정했다.

100인 토론회 집계결과 총 득표 순위는 광주 주먹밥이 가장 높았다. 이어 무등산 보리밥, 광주 상추튀김, 광주 송정리 떡갈비, 광주 오리탕, 광주 육전, 광주 한정식, 광주 애호박찌개, 광주 팥칼국수 순이었다.

부문별 순위에서는 상징성 부문에서 광주 주먹밥, 무등산 보리밥, 광주 송정리떡갈비 순으로 나타났다. 차별성 부문에는 광주 상추튀김, 무등산 보리밥, 광주오리탕 순이다. 대중성에서는 광주 상추튀김, 광주 주먹밥, 무등산 보리밥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 대표음식 선정위원회는 대표음식 선정결과와 이에 따른 정책 권고사항 등을 작성해 전달하고, 광주시는 이를 반영해 6월부터는 광주대표음식 브랜드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 대표음식 상품화를 위한 조리법을 개발해 표준화 및 다양화한다.

이밖에도 시민들과 함께 광주맛집을 선정해 광주대표음식 브랜드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홍보·기획활동을 추진한다.

김일융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시민들과 함께 광주만의 특별함을 담은 대표음식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지역의 소중한 자원인 광주 음식의 미래적 가치를 발견하는 뜻깊은 여정이었으며, 선정된 광주대표음식을 상품화·브랜드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동구, 주남마을 노부부 2쌍 금혼식

"다시 50년 전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광주시 동구 지원2동 주남마을경로당 앞에서 12일 금혼식이 펼쳐졌다.〈사진〉

'기역이니은이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펼쳐진 이번 금혼식은 혼인 50년째를 맞은 노부부 2쌍이 참여했다. 주인공은 최양섭(78)·배순례(여·74) 부부와 김용태(84)·김연심(여·80) 부부다.

'살아보니 좋소! 다시 사랑합시다'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행사에는 전통혼례식·공연·닭 날려 보내기 등을 진행하며 노부부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주남마을 주민, 하객 등 50여 명이 함께하며 축복했다.

배순례씨는 "얼마 만에 이렇게 곱게 화장을 하고 한복을 차려입어본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50년 전 그 때로 돌아 간 것 같아 설레고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기역이니은이축제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주남마을 위령비 주변에서 '기역이니은이 축제'를 개최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5·18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위령제, 녹두 주먹밥 나누기 등을 진행하며 광주 5월 정신을 되새겼다. /김용희 기자 kimyh@

5·18민주광장에 '詩가 있는 꽃벽정원' 설치

김준태 시인 친필 시비
26종 1만여 본 꽃으로 꾸며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제39주년을 앞두고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 내에 '시가 있는 꽃벽정원'을 조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이번에 조성된 꽃벽정원은 광주시가 지역 원로인 김준태 시인의 작품 '금남로 사랑'를 동기로 디자인했다.

'금남로 사랑'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금남로의 절박한 상황을 절제되면서, 평화의 염원을 담아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꽃벽정원은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의 능선을 형상화한 조형물과 달맞이꽃, 백묘국 등 26종 1만여 본의 꽃으로 꾸며졌다.

전면 정원은 김준태 시인의 친필 시비와 민들레 조명과 함께 다랭이논을 형상화해 입체감이 돋보이도록 연출했다.

야간에는 발광다이오드(LED) 경관 조명과 다양한 꽃의 향연이 어우러져 분위기있고 색다른 경관이 연출돼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꽃벽정원은 13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운영되며, 계절에 따른 풍경에 맞게 꽃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자동화 방식으로 1일 3회 관수 가동되며, 야간 이용객을 위한 조명은 오후 7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된다.

광주시는 꽃벽정원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는 방문객과 시민들이 광주의 정신과 문화를 향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 이모씨(산수동)는 "꽃벽정원 설치로 5·18민주광장의 야경이 더욱 아름다워졌으며, 김준태 시인의 시를 통해 5·18을 되새기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강산 푸른도시사업소 소장은 "가장 상징성이 있는 역사적인 공간에 의미있는 시와 꽃벽정원을 장기간 전시할 예정이다"며 "많은 시민이 방문해 광주정신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담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

지역청년 10명으로 구성
'빛고을 소상공인 지킴이'
한 달여 만에 상담 229건

광주시가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직접 업소를 찾아 각종 지원 정책을 설명해주는 '빛고을 소상공인 지킴이'가 큰 호응을 받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청년 10명으로 구성된 지킴이는 지난달 8일 첫 활동을 시작한 뒤 한 달여 만에 2000여 곳을 방문해 상담 229건, 신청대행을 통한 지원 사업 연계 65건 등 소상공인들의 상담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빛고을 소상공인 지킴이'는 자리를 함부로 비우기 어려운 소상공인 업소를 방문해 골목상권 특례보증, 노란우산 공제, 더불어 일자리 지원 사업 등 각종 지원정책에 대해 설명해주고 필요 시 사업신청 대행을 도와주고 있다.

이들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토대로 각 업소에 가장 필요한 정책을 추천해주고,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정확한 구비 서류 안내와 신청을 도와주며 호평을 받았다.

실제 동구에서 소매업을 하던 김모씨는 점포 정리를 준비하던 중 지킴이의 신청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선정되며, 폐업 시 행정절차 및 자산·시설 처분 방법, 세무 관련 컨설팅과 함께 취업을 위한 구직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소상공인 지킴이의 도움이 필요한 업소는 전화(062-960-2638)로 신청하거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빛고을 소상공인지킴이'를 검색해 연락처와 업소명을 남기면 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북구 '주민 솜씨자랑' 특별기획전

24일까지 비엔날레 전시관

광주시 북구가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주민참여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북구는 "오는 24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거시기홀에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제8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성공을 기원하는 '주민 솜씨자랑' 주민참여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지난달 중외공원을 광주 문화예술 발전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시립미술관, (재)광주비엔날레 등 6개 기관이 맺은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별기획전에는 북구 평생학습 특화사업 '인생배움터 무릎학교' 9개 캠퍼스와 용봉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한다.

전시 작품으로는 유화, 퀼트, 자수, 손뜨개, 도자기, 홈패션 소품 등 그림과 다양한 생활 공예품 375점을 전시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전국 대학생 광주 소통콘텐츠 경연대회'

광주시는 청년들의 시각으로 광주의 도시브랜드를 발굴하는 '2019 전국 대학생 광주 소통콘텐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The 따뜻한 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주제로 진행된다.

부문은 영상, 비영상 등 2개다. 영상은 3~5분 이내 영상물을, 비영상은 포스터, 광고지 등을 1팀 2점 이내로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내용은 경제적인 문제로 홍보가 어려운 광주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상 또는 비영상 홍보물을 기획·제작하면 된다.

참가 대상은 지도교수를 선임한 전국 2년제 이상 광고·홍보·미디어 관련 학과·연구모임 대학(원)생이다.

경연대회 작품 제출 기간은 8월12일부터 23일까지이며, 경연대회 홈페이지(contents.gwangju.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받는다.

광주시는 접수된 작품에 대해 9월 중 1차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 20건을 선정한다. /최권일 기자 cki@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구,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8평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 **보1천만원에 월5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감정가 - 1억400만원**
급매 - 7500만원(일시불)
문의. 010-6834-7400